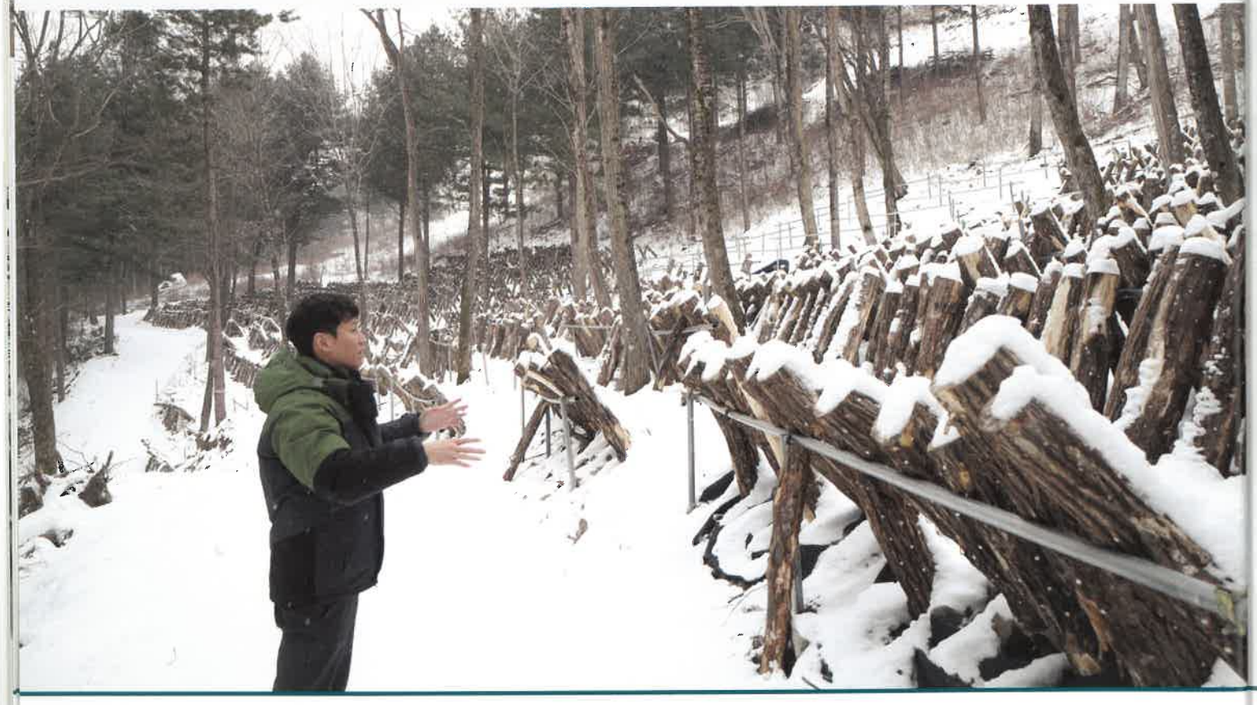
산나물 특구 인제…
상남단지 특화임산물로 한 단계 더 도약

다만 수익을 실현하기까지 수십 년의 세월이 걸리는 육림업의 특성이 산주들의 산림경영 의지를 약화할 가능성은 언제든 존재한다. 더구나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목재산업도 어려움을 겪는 요즘, 산주의 산림경영 의지를 붙잡기 위해선 단기소득임산물을 중심으로 한 특화임산물 사업이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산의 고장인 인제는 전국적 인지도를 가진 우수한 단기소득임산물도 다수 생산하고 있다. 인제가 보유한 '지리적표시' 임산물도 두 개나 된다. 지리적표시는 농·임산물의 명성과 품질 그리고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임산물이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됐음을 나타내는 표시다. 2024년 9월 기준 제64호까지 등록된 상태며, 인제의 지리적표시 임산물은 고로쇠 수액(제50호)과 오미자(제57호)이다.

특히 인제의 고로쇠 수액은 사람 손이 미치지 않은 원시림, 고로쇠 수액 채취·생산에 알맞은 연평균기온 10.3℃의 서늘한 기후, 배·보수력이 뛰어난 사양토와 양토 등의 지리 환경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 고로쇠 수액에 비해 단맛이 덜하면서 청량감이 우수하고 칼슘, 마그네슘 등의 무기물 함량이 많다고 인정받고 있다.

현지 기술 지도 중인 남상민 인제군산림조합 계장.
원목표고 노지 재배장에 눈이 소복하게 쌓였다. 원목표고 노지 재배장으로선 전국에서도 손에 꼽는 규모다



인제의 고로쇠 수액은 상남단지의 산주 소득향상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다. 단지 내에서는 수액을 채취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장비보관소 등을 볼 수 있다. 상남단지 내 인제조합이 소유한 임야에서 자생하는 고로쇠나무에서 수액을 채취할 수 있도록 참여 산주들에게 양여한 것이다. 이로써 산주들이 추가적으로 3,325만 원의 소득을 창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제군은 2011년부터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통해 '산나물 특구'로 지정된 지역답게 각종 산나물을 특화임산물로 선택하여 단지를 조성하고 재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상남단지의 특화임산물은 산마늘, 표고, 곰취, 당귀 등 4개 품목이다.

산마늘과 표고의 경우 초기부터 선정되어 산마늘은 2.0㏊ 규모의 재배단지를 조성했고, 표고도 원목표고로 0.5㏊, 9,000본 규모로 조성한 상태다. 산마늘 재배단지는 지역 산주들로 구성된 농업회사법인 ㈜산놀자가 중심이 돼 재배 중이며 표고 재배단지 역시 지역 산주들이 만든 농업회사법인 ㈜산표고를 주축으로 운영 중이다. 아울러 인제조합은 올해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화임산물로 추가된 곰취와 당귀에 1억9,000만 원을 투자해 0.7㏊ 규모의 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산나물과 버섯 재배단지로서 상남단지의 입지 선정은 현재까지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전덕재 인제군산림조합장은 "상남 지역은 지대가 높아 기후가 서늘한 편으로 기후변화에도 영향을 덜 받고 있으며 서울-양양 고속도로 인제IC도 생겨 입지가 좋다"면서 "최근 소비자들의 다양한



전덕재 인제군산림조합장

품종을 소량으로 구매하길 원하는 트렌드에 맞춰 인제마케팅센터, 홈쇼핑 등과 협의해 판로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인제군은 산림휴양을 통한 산주 소득증대에도 힘쓰고 있다. 마의태자로 유명한 용소마을과 용소폭포 등 상남면의 청정자연과 특화임산물재배단지 등을 이용한 '용소마을 하루살이'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인제조합, 경영체, 마을 등이 함께 기획을 추진 중이다.

전 조합장은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점차 운영협의회와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임산물 판매에서도 상남단지의 특화임산물들이 인제군의 특산품이 될 수 있도록 조합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